

안정된 양계를 바란다

양계불황의 대책과 방안

1. 양계업의 불황요인분석
2. 양계불황의 대책과 방안
 - 가. 종계의 수입규제
 - 나. 초생추생산 조절
 - 다. 소비증대 방안
 - 라. 양계산물처리 공장의 증설 및 이용확대 방안
 - 마. 양계진흥법 제정
3. 기타대책

이 학 철

<영남대학교 축산대학장>

우리나라 양계업이 급속도의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1967년부터 양계업의 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늘높은 줄 모르고 급상승해 왔다고 하겠다. 특히 부로일러업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으리라고 본다.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다루는 행정당국에서도 어떤 목표와 계획과 대책이 없이 무질서하게 세월이 흐르는 대로 따라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과정에서는 계절적인 요인인 심한 기복은 물론이고 결코 순탄하게만 성장해왔다고 볼 수 없다. 특히 1971년 하반기부터는 양계업이 일대 시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처에서 도산이 속출했고 또한 인내로 지탱해 나가는 도산일보적정의 양계가들이 동분서주, 안정양계를 절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겪고있는 장기적인 불황이 어느 특정인의 책임일 수는 없다. 양계업 및 양계분야에 종사하는 개개인과 해당행정당국이 공동의 책임을 깨닫고 혼연일체로 협동과 봉사로서 당면하고 있

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멀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쓰라린 고통을 다시 겪지않고 안정된 양계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가금협회 경북지부에서는 1971년 12월 25일 지부임원 다수가 대구축산협동조합회의실에 모여 양계불황대책에 대한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 1월 20일에는 경북지부 양계인들이 농협중앙회의실을 빌려 서울에서 양계업계, 학계, 사료업계, 도계업계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과 농림부 축산국의 가금관계 담당관을 모시고 장시간 불황대책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회의를 가졌었다. 그때 토의된 사항과 의견의 합의를 얻은 중요사항을 기초로 하여 좁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양계업의 불황요인 분석

불황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오는 것으로서 이는 또한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971년 하반기부터 비롯된 불황은 세계경제 추세에 의한 환율인상 등 국내 일반경제계의 공황과 비상사태선언등의 국내 사회적불안으로 구배

력이 크게 감소한데다가 70년도에 비해서 71년도 전반기부터(3월~8월까지) 부로일러 및 계란가격의 좋은 이상(異常)가격현상이 무모한 사육경쟁을 일으켜 전반기의 사육수수 증가가 “생산과잉”을 초래케했고 이에 따르는 소비증대방안이 없었다는 점이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복잡한 요인이 많이 관계되고 있다. 그 첫째가 초생추수입을 들 수 있다. 산란용 P.S가 69년 94,390수 도입에 비해 70년이 약 109%, 71년이 약 78%의 증가 및 육용 P.S가 69년 124,053수에 비해 70년 약 62%, 71년 약 135%의 비정상적인 증가를 했고 여기에다 G.P.S의 도입까지 합치면 실질 증가율은 더 상승하게 되며 이와같은 급증에 소비가 미처 따르지 못했던 점이고, 둘째로 종계 및 부화업자가 무책임하게 “세미부로종”을 생산하여 판매경쟁을 하였고 이로 인한 가격안정성을 잃게된 것은 물론, 외상판매를 하므로써 사육장려를 촉진시키게 되었으며, 1971년도 육계출하수수 34,587,283 수중 도입종계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약 30%이고 세미종을 포함한 국내생산종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셋째로 양계는 누구나 소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안일한 사고(思考)에다 간접적으로 부화업자들의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판매경쟁으로 인한 외상공세와 사료업계의 판매경쟁으로 인한 외상공세가 일반인들이 너도나도 계획없이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장해주었다고 본다. 이외에도 간접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상 몇개로나누어 요약한 불황요인이 전술한 1월 20일의 양계관계회의에서도 대체로 일치된 의견들이므로 알고 있다.

2. 양계불황의 대책과 방안

항상 어느 부문에 있어서나 대책과 방안은 환경요인의 변화와 같이 변하게 되고 또 그 변화에 따라 보완해야 하는 것이므로 오늘의 어떤 대책과 방안이 내일과 모래에도 가장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급박한 현실에서 그냥 또다시 세월과 함께 흘려버려서 우리 모두가 자살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 시점에서

하루 빨리 일심단결하여 좋은 대책이 마련되어져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가. 종계의 수입규제

종계수입과 초생추생산은 곧 직결되는 것이다. 종계업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외화를 사용해서 비싼 돈으로 도입한 종계를 불경기라고 해서 부화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외화의 낭비일 뿐 아니라 개인의 큰 손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술한 불황요인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비정상적인 도입증가를 방임할 것이 아니라 소비에 따르는 적절한 도입허가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 적정선이 얼마면 좋으나 하는 것은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의 도입종계수수, 그에 의한 초생추생산수수, 생산물의 가격등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증감계획이 년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수립이 긴급하다. 동시에 우리나라 환경여건에서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품종의 선택추천이 병행되어야 하고 P.S생산치의 외국능력자료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도입계에 대한 능력검정을 더 한층 강화하고 능력검정소를 서울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검정소 설치지원대책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육종계의 국내 육종개발을 위해 육종계순종을 수입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종계도입시에 여분의 숫병아리를 도입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세미부로의 무작정생산은 금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암, 수 비율로 도입하도록 하는 규제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 초생추 생산조절

부화협회에서 집계 발표한 71년도의 초생추 생산출하 통계자료를 보면 암병아리가 17,792,090수, 숫병아리 13,336,939수, 육계(수입, 국산포함) 34,587,283수로 총계 65,716,312수이었다. 이것이 전국부화기 가동능력의 45%정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며 그렇다면 부화업자의 무모한 부화장 확장도 불량을 가져오게한 근본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생산조절은 부화업자 자신들의 도산을 방지하고 건실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스스로가 협력하여 당장의 목적이
익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차원이 높은 입
장에서 자율적으로 자체규제가 행해져야 한다.
이것은 지금 겪고있는 극심한 불황을 일시나마 타
개하는 수단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
각한다. 어느 누가 이것을 강요나 강압을 할 수
도 없는 일이고 부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안
정된 양계가 곧 부화업과 직결된다는 초연한 자
세로서 부화협회가 주동이 되어 뭉쳐서 구체적인
자율규제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간접적으로는 해당되는 농림부령을 보완
하여 보다 철저한 감독과 보다 까다로운 허가기
준을 설정하여 신규부화장등록은 반드시 부화협
회의 허가를 얻은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소비증대방안

국민의 소비성향은 우리나라의 일반경제 성장
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고 본다. 국민소득
의 증가가 자연소비증대를 가져오는 것이긴 하지
만 보다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집중시켜 양계생
산물의 국민보건상 가치와 양계산물 가공업도 강
력추진, 연구개발하여 국민들에게 풍부한 영양가
를 갖고있는 동물성식품을 다양하게 매스콤 및 강
습회등을 통하여 널리 계속적인 선전방법을 강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적인 캠페인을 전개
해야 할 것으로 안다. 이뿐만아니고 군납에 대
한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성있는 대책도 게을리해
서는 안되고 해외수출시장도 개척하여 구상무역
을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라. 양계산물 처리공장의 증설 및 이용확대 방안

무엇보다도 먼저 도축법을 강화하여 도계처리
의 일원화를 기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
게 함으로써 일반시장 및 자기양계장에서 비위생
적인 처리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의 양계산물처리에 대한 신임도를 높이도록 해
야함과 동시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처리공장을 증설해야 하고 급속냉동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확충도 있어야 한다. 도계
처리문제 뿐 아니고 계란에 대한 저장, 냉동 및

그 이용방안에 대한 것도 동시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 양계진흥법제정

낙농분야는 낙농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어 낙농
가의 권익보호와 낙농진흥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
고 있다고 듣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양계
진흥을 위해서 마련된 법제정은 없었다. 법
이 곧 안정양계일 수는 없지만 법의 운영을 잘한
다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다. 적어도 이법은 앞으로 안정된 양계를 할 수
있고 양계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대책
과 방안도 이속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자체
보상금 조성문제 및 그 활용방안을 비롯하여 국
내계의 육종방안, 국내사료자원개발 및 그 이용방
안, 양계업의 권익보호는 물론 소비유통대책, 기
술대책, 가격대책, 질병대책, 운자대책, 양계진
흥식의기구설치등등의 양계안정 및 진흥을 위하
는 것은 모두 포함될 것이다. 이법이 제정된 후 운
영의 묘가 안정양계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리라
고 믿는 바이다.

바. 양계진흥 협의회구성

현재 우리나라는 양계업관계에 협회단체가 많
이 있으나 지금까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일을
강력히 구사해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
각 독립된 협회가 뭉치지 않고는 대책의 통일성
을 기할 수 없고 강력한 집행력을 행할 수 없으
므로 이들을 연합하고 이들간의 조절작용도 할 수
있고 의견의 집합체로서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양
계발전에 필요한 법제정, 개정 및 모든활동을 협
의하는 모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지
난 1월 20일 양계관계회의때 그 필요성이 강조되
어 이미 구성되고 있다. 또 그때 불황대책 및
제거방안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되도록 가금협회,
부화협회, 사료협회, 학계 등등에 각각 분담하여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구체안이 협
의회에 제출되면 협의 검토하여 그 목적별 활동
이 추진될 것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항구대책
방법에 대하여는 상세한 말씀을 못드렸으나 구체
안이 작성되어야 할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간단히
열거하였다.

3. 기타 대책

지금 양계사육자중 그 대부분이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므로써 손익(損益)은 커녕 무작정, 무계획, 무질서하게 사육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을 합리적 경영으로 이끌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양계가의 건실성과 성실성에 좌우되는 것이지만 항상 끊이지않고 계속되는 대책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금협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며 또한 양계기술자 경영훈련소 같은 것을 만들어 실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보다 안정된 양계로 가자면 양계가 자신들이 협업 양계화로 될 수 있는 자세가 빨리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도 빠뜨릴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도 합리적인 경영으로 선도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고 또 협업화되므로서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한방편이 되기도 한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축산협동조합이 강력한 체질개선을 하여 명실공히 양계인 또는 축산인의 조합이 되도록 그의 활동방안도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는 홍보활동의 강화로 행정당국은 물론이고 협회등에서 양계업동향의 신속한 정보제공, 그의 정확한 판단 및 기타 관계된 정확한 통계자료등을 제공하여 양계업종사자가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안정양제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하나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즉 생산, 유통정보조직의 확립이 필요하다. □□



협성가축약품공사

가축예방약 · 치료제 · 사료첨가제
소독약 기타 일체 총판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앞

(92) 7779

협성가축병원

가금진료전문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앞

(92) 7779